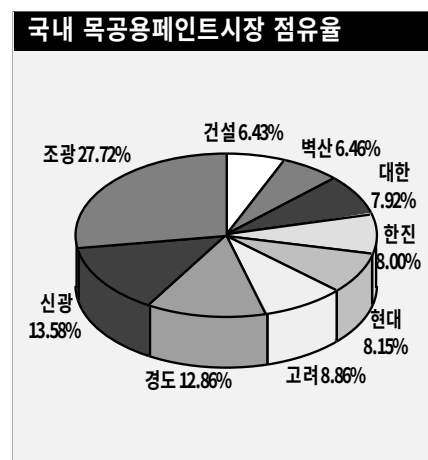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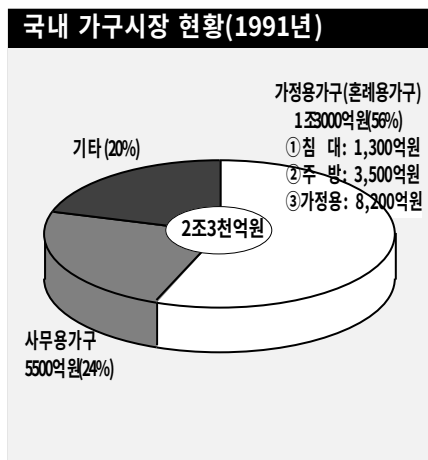


목공용 페인트 시장 “침체”

700억원 91년수준 머물러 … 과소비 억제 및 부동산 경기 위축 영향

92년 국내 목공용페인트시장은 산업경기 의 전반적 부진과 과소비 억제풍조 및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가구소비의 저하로 성장률이 멈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 91년에도 국내 산업경기가 부진했으나 목공용페인트시장은 아파트 경기활황세와 민간 소비증가세에 힘입은 가구소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13.6%, 23.7% 증가한 565억6400만원, 699억5800만원 규모를 형성했으나 이후의 사정바람, 부동산경기위축 등의 영향 및 가구업계의 수출부진으로 91년 시장규모에서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공용페인트는 용도에 따라 가구용과 악기용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목공용페인트시장은 주로 가구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레탄계, 폴리에스테르계, 광경화형(UV)도료 등이 있다.

이 중 우레탄계가 전체 품종별 분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규제 강화, 생산성 증가 등과 관련, 광경화형도료의 증가율이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목공용페인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구업계는 가구생산설비의 과다보유, 비싼 인건비 등으로 고정비의 지출이 크게 늘어 경쟁력이 우리와 경쟁상대인 인도네시아 등과 설비는 비슷한 반면 가격은 배이상 차이나 수출이 격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출·내수가 모두 부진, 재고가 누적돼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 보루네오, 삼익, 라자가구 등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현재 법정관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목공용페인트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는 조광페인트·신광페인트·경도화학 등이 있는데 이들 기업 모두 목공용페인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온 배경을 갖고 있다.

92년 시장점유율은 조광페인트 28%, 신광페인트 14%, 경도화학 13% 정도를 이루고 있다.

국내 목공용페인트 시장규모를 추정하는데에 있어 가구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91년 국내 가구시장현황은 가정용가구(주택용가구)가 전체 가구 내수시장의 56%인 1조3000억원, 사무용가구 24% 5500억원, 기타 목재창호, 불단, 광경화형도료사용가구 등이 20% 4500억원으로 총 2조3000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가구용 페인트사용액을 가구당 0.04~0.05%로 잡을 경우 목공용페인트 시장규모는 920억~115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